

서울환경교육연구회

서울환경교육연구회는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 53명이 「환경교육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발기하여 93년 9월25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5백여명의 회원이 회지 발간, 세미나 개최, 현장학습 등 왕성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대별되는 환경문제이다. 지난 199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회'를 계기로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인류의 생존 자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21세기를 향한 국제적인 환경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교육자로서 환경교육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해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환경교육과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가 바로 서울 환경교육연구회다.

「환경교육선언문」 발표 계기

서울환경교육연구회는 과학기술교사 자율연수인 '학교실험 폐수처리과정' 연수(1993년 6월 2~4일 서울과학교육원)에 참석한 연수생 38명의 제의로 환경문제에 뜻이 깊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53명이 모여 '환경교육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발기하였다. 그후 1백여명의 회원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93년 9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그간 본회는 회원이 5백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새마을 주임교사가 환경 주임교사로 전환되어 환경교육활동의 활성화에 촉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의 지원으로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다양하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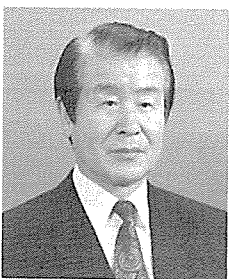
본회는 회지 발간, 환경교육세미나,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 하계 및 동계 교사 자율 연수, 환경교육 특별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면서 특히 국민 학교, 중학교, 자연·과학 교과지도용으로 '환경교육 문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회원 5백여명 세미나 열고

환경교육세미나는 지난 5월 30일 경기 고등학교 강당에서 4백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석관중학교 이선경(환경교육 박사) 과학주임선생님의 연구 주제 발표(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와 서울연은국민학교 김지상환경주임선생님의 '바람직한 환경교육방안' 등 세편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환경교과의 지도교사 증원과 환경교과 선택의 확대, 의식교육을 통한 실천운동 등이 결론으로 제안되었다. 의식과 실천운동으로서는 '나'부터, '지금'부터, '손쉬운 일'부터의 3부터 운동과 ① 녹색환경 신탁통장 갖기, ② 우유팩 수거 및 재생화장지 교환 활용하기, ③ 자원재활용 노래부르기, ④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와 쓰레기 분리하기, ⑤ 폐전화카드 수집과 재생 활용하기, ⑥ 헌 물건 바뀔리기, ⑦ 식사지도 및 식사 후 처리, ⑧ 음식찌꺼기 발효 및 유기질비료 활용하기, ⑨ 훈화 및 명상시간 갖기, ⑩ 환경 일기 쓰기 등 10개 항목의 실천 내용을 발표하면서 학교에서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金 知 泰
(경기교교 교장)

하계 교사자율연수 모임도

7월25일 경기고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던 하계 교사자율연수에서는 지구 보존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탄산가스량의 증가,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로 인한 피해, 유해 폐기물에 의한 오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가짐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소양을 넓혔으며, 의식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연수를 통하여 탄산가스가 1백년동안 양적인 증가를 하면서 연평균 기온을 섭씨 0.6도 증가시켰으며, 그 정도는 2만년전 190ppm에서 산업혁명 이후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320ppm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6년 후인 2000년에는 380~390ppm에 도달하게 되어 남극과 북극에 있는 3000~4000m 두께의 빙산이 녹아 제2의 '노아의 홍수' 시대가 도래하여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환경교육 특별강연회가 9월 29일 경기고등학교 강당에서 서울 시내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는 일선학교의 학교 환경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 문답자료는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단일별 차시별로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국민학교 1~2학년 자연 교과용과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용을 제작하여 이미 금년 초에 각급 학교당 2권씩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2년간 계속 국민학교 6학년용, 중학교 3학년용까지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학교와 교과별 전공을 초월한 광역적 모임의 특

성을 살려 많은 교원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회원 자신에게도 보람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서울 시내 전 교원이 학교 환경교육에 높은 관심을



▲지난 93년 9월 서울환경교육연구회 창립총회 개최식장면.

◇ 95년도 사업실적

사업명	실시 기간	사업 내용	비고
회지 발간(제5호)	5. 1	회지 발간 및 배부(3500부)	24쪽 단색, 표지 컬러
환경교육지도 자료 제작	5. 1	국교 1~2학년용 제작 배부(1500부) 중학교 1학년 과학용 제작 배부(1300부)	45쪽 단색 표지 컬러
환경교육 세미나	5. 30	연구주제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1500부 인쇄)	질의응답자료 제작 (30쪽)
하계 환경교육 자율 연수	7. 25~26	언론인 연구발표 시범학교 교사연구발표 현장 학습 견학	자료 제작(25쪽), 500부
회지 발간 (제6호)	8. 25	회지 발간 및 배부(3500부)	28쪽 단색, 표지 컬러
환경특별강연회 및 정기총회	9. 29	전문가 환경특별강연 정기총회	사업보고 임원선출
환경교육지도 자료 제작	11월~12월	국교 3~4학년용(1500부) 중학교 2학년 과학용(1300부)	96년 4월 배부 예정
동계환경교육 자율 연수	12월	환경교육교사 연구사례발표 원자력발전소 견학	자료 제작(20~30쪽) 500부
회지 발간 (제7호)	12월	회지 발간 및 배부(3500부)	32쪽 단색, 표지 컬러

갖고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96년부터 해외교육환경 답사

또한 국내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기관의 협찬을 얻어 새로운 환경교육 정보를 얻어 널리 보급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 선진국 환경교육의 현장을 찾아가 국제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연구도 추진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을 보다 넓혀 환경교육의 세계화는 물론 지구 환경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지구는 생명의 유일한 터전이며, 물, 공기, 토양은 우리와 우리들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근원이 되는 환경이다.

교원 여러분들이 본회의 결성 취지와 사업활동에 동참하고 결집된 능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물론 학생들에게 자연사랑, 학교 환경 보전 의식을 길러 주고,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실천운동을 스스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오염없는 자연과 국토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 더욱이 '오염없는 우리 학교', '맑은 물, 푸른 하늘 보전하기', '자연 사랑, 나라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본회의 설립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전 회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㉞